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목상하고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우리가 가지고 이번 주간에 누려야 되었다. 어제 어느 신학원에 개강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가서 이야기했다. 창1:27-28에 처음의 인간이 나온다. 그 인간이 창3:1-6에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시달리다가 지옥에 간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생명으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예수 영접했을 때 뭐가 회복된 것인가? 창1:26-28의 본래 인간으로 회복된 것이다. 처음 인간이 회복된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 생각에는, ‘내가 처음 인간으로 회복되었는데 왜 실수하는 것일까. 주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인도받고 충만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넘어지는 것일까. 왜 차만 끼어들면 쌍욕이 나오고, 왜 나는 자꾸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더러운 인간이 되는가.’ 그게 너무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주여,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까, 왜 나는 회복이 안 됩니까.” 울고불고 기도했다. 목사가 되어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창3장 이전에 한 번도 죄 짓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도 타락해 버렸다. 하나님은 그래서 회복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몇 가지를 더 주셨다. 한 번 주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할 수 있느냐, 지옥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성경에는 히브리어 6장의 말씀처럼 예외조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언제 한 번 메시지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도 누리지 못했던 축복을 하나 더 주셨는데, 그게 24시와 25시와 영원이다. 그 말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승리하는데, 행1:8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면, 그때 너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네가 24시 해 버려라. 25시 해 버려라. 영원히 이것을 의지하면 너는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엡6장에 이렇게 말씀했다. 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한 것이다. 성령충만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 엡5:18에도 말씀했다. “술 취하지 말고,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해 버려라. 그러면 너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충만하면 기도가 다르고 봉사가 다르고 삶이 다르다. 이 성령충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받았더니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히려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성령충만의 선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24시간 성령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란다. 그러면 성령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사업도 그렇게 해 보라. 직장생활도 그렇게 해 보라. 직장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오늘도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하나.” 그러지 말고 “주여, 보셨지요?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1)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자시다. 제사장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그들이 계속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세우고 하니 까 많은 것이다. 김동진 목사는 120까지 자기는 살면서 계속 해먹을 것이라고 하는데, (웃음) 나는 ‘친구야, 너는 계속 해먹어라, 나는 80까지만 하다가 갈 거다’ 한다. 내가 은퇴할거라 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장로님들은 잘 판단하셔야 한다. 나는 램넛트를 믿는다. 우리 세대의 할 일이 있고 후배들이 할 일이 있다. 선배들만이 옳고 훌륭하다는 것은 동양 사상이다. 그러니까 공자를 못 넘어서지. 그런데 서양 사상은 다르다. 후배들이 계속 선배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뉴턴도 다 과거의 사람이 된다. 소크라테스는 완전 영감 아닌가. 새 시대에는 새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신학생들을 보고 이야기한다. “너희들 중에서 다음 시대의 메신저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가? 24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다. 그는 죽지 않고 다시 사셔서 영생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25절에 말하기를, 그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말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 예배학자가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았는데 왜 살아계신다고 하나. 성부 하나님은 죽으신 적이 없고 죽으실 수도 없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면, “야, 내가 언제 죽었나 이놈아.”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바로 나를 위해 지금도 주님이 보좌에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영원하신 것이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래서 모든 과거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모든 현재 문제도 끝났다. 모든 미래 문제도, 아직 남았나? 끝났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은 것이다. 이해가 안 되면 엡2:1-10을 다시 자세히 보라. 과거문제, 현재문제, 미래문제가 다 끝났고 보장되어 있다. 할머니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내가 팔각 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 (웃음) 내가 속속 갈 일이 있어서 수련회에 갔다가 백순덕 권사님께 가 봤다. 충기가 있으셔서 나를 알아보시더라. 여전히 건강하신데,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바란다. 계속

기도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고백하라고 인사하고 왔다. 여러분, 끝났다. 천국에 우리가 살 최고의 집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요14:1-6을 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거기로 다 데리고 가겠다.” 할렐루야! 그러나 도마가 물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거기로 갈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몰랐나?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천국에 가는 거야.” 모든 과거의 상처, 죄의식은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 버려라. 모든 현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하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너는 주소를 잘못 찾아왔다고 선언하라. 모든 미래문제는 주님께 맡겨 버리면 된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자라도 크겠는가. 걱정하지 말고 맡겨라. 미래 걱정하지 마라. 이게 구원의 영원성이다.

(2) 또 붙잡을 것이 있다. 그게 완전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시다.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했다. 어떤 분은 나를 보고 교회 왔다고 하는데, 나를 보지 마라. 그런데 그분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인다. 나는 계속 있는데, (웃음)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의정부에서 여기 올 때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 “저 이제 교회 안 갈래요. 목사님 없으면 무슨 재미로 교회 가요.” 나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다. (웃음) “내가 그러면 될 거르니 뭐 됩니까.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새로 오실 목사님을 나보다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주세요.” 인정으로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 싶다. 그래서 제자 찾으려고 일부러 무정하게 한다. (웃음) 요즘도 옛날에 하던 인정 많은 목회가 좋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만 봐 달라는거지. 미국에 가서 권사님을 만나 봤더니, 이분이 나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너무 하셨어요. 전화도 하지 말고 편지도 쓰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셔서 너무 찾아뵙고 여쭙고 싶었는데 못 했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냥 오지. (웃음) 다른 말은 다 순종 안 하면서 그 말은 꼭 순종하냐. (웃음) 그래도 사과하면서 다시 이야기해 줬다. 그게 목사의 윤리고 도덕이다. 하고 싶다고 다 하고 보고 싶다고 다 찾아가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인정에 끌리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라.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주님만이 영원하시다. 조금만 안 보면 핵 틀어져가지고 어떤 분은 계단에서 마주쳤는데, 사람이 많아서 미처 인사를 못 했더니, ‘목사가 나한테만 인사를 안 하더니.’ 그러면서 빠져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굴면 되겠다. 꼭 인사 받고 싶으면 계단을 다시 돌아와서 인사하면 될 것 아닌가. (웃음) 어떤 분은 나를 보기도 인사 안 하고 가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눈이 어두운 것이었다. 어찌 사정이 없었나. 그러니 섭섭병 걸리지 마라. 예수 안에서 다 끝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갈 것이다. 하찮은 것 가지고 섭섭해 하고 시험 들지 마라. 별 것 아닌 것에 걸려 넘어지는 웅졸한 사람 되지 마라. 결론을 내려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조금 실수해도 괜찮다. 조금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구원을 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님은 조금 섭섭해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다시 힘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램넛트들은 힘 내시기 바란다. 그렇다고 명성 깔아놓고 퍼질러지라는 말은 아니다. 넘어지지는 않는 사람에게 일부러 넘어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 않나.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나라, 괜찮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류 따라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22절에 결론이 나온다. 영원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더 좋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보다 더 놀라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다. 구약 성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계복음화를 잘 몰랐는데,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더 좋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충만의 선물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법적인 보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19절에 나온다.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 완전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언약대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을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서 품으시기 바란다.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란다. 하나님은 더 좋은 언약, 축복을 우리에게 성취시키실 것이다. 승리하는 한 주간, 남은 생애 되시기를 축원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고, 선지자로 왕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영원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충만 누리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제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낙심한 분을 일으켜 주옵소서. 실망한 분을 일으켜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